# "우수 교수진 초빙·미래 공학 리더 양성·연구중심 대학으로"

##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포럼' 어떤 이야기 나왔나

### "과학 비즈니스 산업의 리더 교육되고 만들어져야 연구·실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필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포럼'에서는 한전공대 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우수한 교수진 초빙이 가장 뜨거운 주제였다. 또 일반 대학과 달리 에너지 특성화 대학이라는 점에서 교육중심의 대학 운영을 벗어나 연구·개발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부르크하우트 라우헛(Burkhard Rauhut) 독일 아헨공대 전 총장은 '기존 대학간 차별화 부각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적 대학 설립을 위한 교육환경과 교수진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발표를 통해 "좋은 대학은 현재 존재하는 지식을 보전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과학비즈니스 산업 리더가 대학에서 교육되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경우 입한 전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의 사전교육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고, 현장에서 IT관련 용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전문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교육도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대학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있는 교수들의 초빙이 필요하고 뛰어난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재철 숭실대 교수도 '에너지 중심 미래공대 운영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한전공대의 비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 역시 공학 교육 혁신을 위해선 인재양성이 필요하고, 미래 공학 교육 비전을 위해서는 미래 공학 리더 양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 공학교육 과정에 있어 개인 중심이 아니라 팀단위로 연구하고 협력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총장과 교수, 연구원 선정은 물론, 비전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며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패널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패널로 참석한 전성철 IGM 세계경영연구원 회장은 "공기업이 세계적인 대학을 세우는 일은 국내 최초의 사례다. 한전공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무엇보다 목적의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조환익 한전 사장이 언급한 대학의 규제부분에 대해서 전 회장은 카이스트와 포스텍을 예를 들었다.

포스텍의 경우 대기업인 포스코의 전폭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단기간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카이스트의 경우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과학기술부 소속이라는 점도 토론의 화제가 됐다.

전 회장은 이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카이스트의 성공모델을 어디서 찾느냐 생각해보면 자유롭게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것"이라며 "한전공대의 경우도 카이스트와 마찬가지로 연구·실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정 규제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규제로부터 보호받는 '거대한 우산'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정병석 전남대학교 총장은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지역대학으로서의 우려와 한전공대가 나아가야 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선 그는 "현재 전남대에서도 TF팀을 꾸리고 곧 설립될 한전공대에 대한 대응방안에 고심하고 있다"며 "지역에 세계적인 대학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한전공대 설립을 도와가자는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는 한전공대가 세계적인 대학이 될 것이라는 것에 기초한 것으로, 정 총장은 "카이스트나 광주과학기술원이 단기간 좋은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의 교육보다는 연구에 중심을 두는 연구소 개념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인 대학과 달리 학과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적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좋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학부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졸업한 뒤 취업을 위한 곳이 아니라 뛰어난 연구원을 발굴하는 첫 단추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한전공대를 졸업한 인재가 한전에만 취업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등 한전공대가 추구해야할 방향에 대한 제시도 있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2일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전 공대 Big Picture를 꿈꾼다'란 주제로 포럼이 열리고 있다. 조환익 한전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야구선수 이미지도 매혹적인 예술이 된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 (201) 야구

지난 주 코리안 시리즈 1차전을 보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 다녀왔다. 평소엔, 4시간을 훌쩍 넘기도 하는 그 긴긴 스포츠경기를 보러가는 사람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야구장 한번 다녀온 후 야구 하이라이트를 챙겨보면서 두 배의 즐거움을 누렸다. 코리안 시리즈가 끝나면서 새로 탄생한 스포츠 스타들의 이야기도 이제는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팝아트의 아이콘 앤디 워홀(1928~1987)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대중에게 유명해진 스타의 이미지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작가였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이미지를 모티브로 초상화 작품을 제작했던 앤디 워홀에게 전설적인 야구 선수 피트 로즈(1941~ )는 각별했던 것 같다. 앤디 워홀의 '피트 로즈'(1985년 작)는 미국 프로야구팀 신시내티 레즈에서 활약한 야구선수 피트 로즈의 이미지를 아크릴 페인트를 사용하여 실크 스크린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신시내티미술관의 의뢰로 작업한 이 작품은 야구카드를 모방하여 오른손 타격자세를 한 피트 로즈의 모습을 네 가지 이미지로 반복했지만 4개의 배경색으로 제작한 까닭에 같지만 조금씩 다른 차이를 보여주면서 앤디 워홀만의 고유한 예술성을 각인시켜 준다. 선수생활 은퇴 후 신시내티 레즈에서 감독으로 재임하기도 했던 피트 로즈는 자신의 팀에 내기를 건 도박 사실이 알려져 메이저 리그에서 영구 제명되기도 했는데, 이는 워홀 사후의 일이어서 작품 속에서나마 영웅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앤디 워홀 작 '피트 로즈'(1985년 작)

구두광고 디자이너 등 상업미술을 먼저 시작했던 워홀은 상업미술을 할 때는 순수회화의 고상한 감각을 이용해 능력을 인정받고, 화가가 되어서는 상업미술의 기교를 차용해 현대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미학을 보여주었던 영리한 작가였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듯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작업실을 '팩토리'라고 불렀는데, "사업을 잘 하는 것도 매혹적인 최고의 예술이다"면서 부와 성공에 대한 집념을 도발적으로 고백한 바 있다.

〈광주비엔날레광주폴리부장·미술사박사〉

**사과드립니다** 본사 시스템 오류로 2일자 김은영의 그림생각 201회 '야구' 기사가 잘못 게재됐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국민의당·광주시 오늘 예산정책간담회

### 광주 현역 의원 - 윤장현 광주시장 등 참석
### 2018년도 국비지원사업 등 현안 해결 모색

국민의당과 광주시는 3일 국회에서 '2018년도 광주지역 국비지원사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광주시는 앞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는데 국민의당과의 예산정책간담회는 정치권의 여러 사정 등으로 그동안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정부안에서 빠졌거나 삭감된 예산을 국회에서 되살리기 위한 광주시의 예산안 확보 작업도 본격화됐다.

이번 예산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국회부의장, 천정배 의원, 장병완 의원,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송기석 의원, 최경환 의원, 김경진 의원 등 광주지역 현역 의원들이 참석한다.

또 황주홍 국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참석해 광주지역의 중요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광주시에서는 윤장현 시장과 김종식 경제부시장, 김종효 기획조정실장 및 각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2018년도 광주시 국비지원사업 등 지역현안을 공유한 뒤 ▲대형공원 국가공원 지정 및 국비지원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스마트시티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 조성사업 추진 지원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등의 광주지역 현안 사업의 국고지원을 논의하게 된다.

또 ▲광주~대구 동서 내륙철도 건설 ▲한전공대 설립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국책기관 설립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등 광주시의 주요현안사업과 20건에 달하는 국고지원 건의사업들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인 최경환 의원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전체가 광주지역 현안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예산안에서 삭감된 광주SOC 예산부터 재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